



초대석

제54회 행정고시(행정직렬) 수석합격 이 상 목

- 1983년 06월 생
- 경남고등학교 졸업
- 동아대학교 국제통상관광학부 4년 재학



Q 진심으로 수석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정고등고시 검찰사무직에 응시하여 2차시험에서 68.07점을 얻어 전체수석을 하셨습니다. 간단한 자신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감사합니다. 먼저 과분한 영광에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계속 일과 학교를 병행하고 있었는데, 2006년 말에 회사와 학교를 그만두고 2007년도부터 수험생활을 시작했습니다. 07년 10월 신입동에 올라와서 08년부터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작년(09년)에 면접에서 불합격 한 후에 올해(10년) 다시 최종합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Q 수석이라는 소식을 접하셨을 때의 소감과 수석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A 처음에는 놀랐지만 크게 동요하거나 흥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지 조금 부끄러운 마음 또한 들었으며 담담하게 받아들여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석비결이라고 일컬을만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돌이켜봤을 때 첫째 고시계에 실린 현직 교수님들의 강평과 채점평을 수시로 읽으면서 출제자이자 채점자인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답안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둘째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신문이나 뉴스를 매일 보면서 시험 과목과 관련된 사건이나 상황이 있으면 항상 무엇이 쟁점이 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예를들면 길을 걷다가 동사무소 앞에 붙은 공고나 고시를 보면서 법적 성질과 쟁송기간의 기산점, 그리고 내용에 적힌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쟁점과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쟁점 등을 생각해 보는 식입니다.

Q 대학에서의 전공이 법학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검찰사무직을 선택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다른 분들과 달리 저는 애초부터 행정고시 검찰사무직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이는 제 수험동기वाद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중2때부터 고3 수능 한달 전까지 쉬지않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이때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면 기뻐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꼈기에 처음에는 관광경영 쪽으로 학고를 진학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생활고를 겪거나 범죄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자주 보았고 의경으로 군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공직으로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는 분의 소개로 현직 사무관님과 검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검사나 경찰과 다른 행시 검찰사무직만의 특성과 메리트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릴때부터 알던 친구들이 '넌 된다' 라고 응원을 아낌없이 해주는 것에 힘을 얻어서 행정고시 검찰사무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합격까지의 1차와 2차 공부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A • 1차공부 과정

1차의 경우는 처음부터 사실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07년 4월 경 06·07년 기출을 푼 것이 처음 접한 것인데, 점수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07년 10월 신림동에 올라와서 피셋 스터디를 구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때 스터디에서는 모의고사를 풀고, 개인적으로 06년과 07년 기출을 풀면서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기출분석으로 논리와 단순계산의 실수라는 제약점을 찾아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논리학 특강을 수강하고 암산 문제집을 두 권 사서 풀었습니다. 이런 기초작업 이후에는 실수를 줄이는 스

길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2차공부를 하면서 피셋 점수 또한 함께 올라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 2차공부 과정

08년 2차 시험장에 들어갈때까지도 ‘목차를 잡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처음엔 돈을 아끼겠다고 학원강의도 듣지 않고 무작정 교수님 저서만 읽었기 때문에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 뭐가 중요한지, 용어의 의미도 모르는 채 헤매고 있었습니다.

08년 가을부터 테일을 구해서 들었는데 특히 형법의 경우는 사시 1차 합격생을 전제로 강의하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힘이 많이 들었고, 기본서와 함께 복습하는데 하루의 대부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강의가 지원되지 않는 과목은 조금 괜찮은 책이다 싶으면 사서 무작정 읽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전혀 체계가 안잡힌 채 헤매고 있었습니다.

09년 초. 형법과 형소법은 3순환 강의를 들었고, 행정법은 사례집과 기본서로 독학, 나머지 2과목은 논문을 정리하고 단권화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입법고시 2차 시험장에서 3과목만 보았는데 그때 나온 점수를 보고 제 공부방법을 다시 평가하여 답안 작성에 최대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09년 6월. 이때의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시중의 모의고사는 거진 다 풀어보았고, 불웁은 하루에 1개 이상 닳아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밥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하루종일 답안을 작성하고, 시험장에 가져갈 한권의 책을 정해서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09년 12월에서 10년2월. 면접에서 불합격한 후 신입동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돈을 아끼지 않고 사법시험 2순환 행정법, 형법, 형소법을 실강으로 수강했습니다. 이때 몇 번 최고답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0년 봄. 2과목은 3순환 수업을 들었고, 3과목은 혼자 정리했습니다. 작년의 경험으로 인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지 미리 계획을 다 세워 놓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시험 직전까지 계획대로 공부했습니다.

Q 1차와 2차 공부를 하시면서 어려웠던 과목(1차, 2차로 나누어)과 공부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 1차의 경우

1차인 PSAT에서는 자료해석이 처음에 가장 어려웠습니다. 도표와 많은

숫자들을 볼때면 눈이 어지러워졌고 머리 또한 회전되지 않아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꼼꼼히 분석하면서 단순계산의 잦은 실수, 비효율적인 표읽기, 분수형태의 공식과 공식 사이의 관계 파악 등의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칙연산 암산집을 두권 사서 매일 시간을 재며 풀었고, 표를 보는 방법을 연구했으며, 통계에서 자주 쓰이는 공식을 정리해서 틈틈이 변환시키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57.5점이었던 자료해석 점수를 2010년 85점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2차의 경우

모든 과목이 어려웠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항상 과락걱정을 할 만큼 행정법이 어려웠습니다. 교수님들 저서가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전제로 서술된 경우가 많고 행정법 자체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법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일관성을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2009년 시험 이후 혼자서 중구난방식으로 공부하던 것을 버리고 행정법을 처음부터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강사 한분을 정해서 2순환과 3순환을 따라가며 수험적 체계를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고시계에 실린 사법시험 채점평과 행정고시 강평을 읽으면서 교수님들이 답안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정도 자신감이 생겼고, 비록 올해 3문을 거의 다 날렸음에도 평균적인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Q 행정고시에서도 면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면접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A 2009년 면접을 준비할 때는 안이한 마음에 부산에서 혼자 준비하면서 대기업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스터디를 했습니다. 당연히 공직에 대한 이해나 태도가 결여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면접 불합격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 면접을 대비해서 1차시험 전부터 '나는 공직자다'라는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언론을 접했으며, 사교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 후에 면접관련 서적과 각종 보고서 및 국정홍보집을 보았으며, 2차 발표 후에는 면접 스터디를 구해서 스터디원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험으로 인한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면접관님은 내 직장 상사이자 선배님'이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였고 덕분에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Q 얼마전 행정고시 특채 비율의 상향조정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되는 배경에는 현행 제도의 단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현행 행정고시 제도에 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먼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최근 특채 비율의 상향조정 논의는 공직 내부의 경쟁력 약화와 전문성의 한계라는 지적에서 나온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시라는 제도는 공정한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채용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고시제도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되었는지, 무엇이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인지 심도있는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행정고시 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첫째 면접탈락자의 유예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1차 시험 후 발표날짜를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의 심정은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은 모를 것입니다.

Q 공부하시면서 어려웠던 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슬럼프의 극복방법은?

A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정보의 부재와 경제적 문제입니다. 지방에서 혼자 달랑 가방 두 개 들고 올라와서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행시사랑카페와 스터디 분들의 도움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문제는 제가 식비와 학원비를 최대한 아끼는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제가 모은 돈과 집에서 도와주는 돈 그리고 아는 형님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온갖 불안함과 고립감으로 인해 슬럼프가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힘들어 할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슬럼프가 닥치면 슬슬 잡생각이 많아지며 공부가 하기 싫어집니다. 이럴때는 그냥 책상을 떠나 하루나 이틀정도 하고싶은 것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 뒤에 하루씩 공부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첫날을 2시간, 다음날은 4시간, 그 다음날은 6시간 이런식으로 공부

시간을 늘려감으로써 스스로 '난 슬럼프를 극복하는 중이다'라는 마음이 들어 기분이 좋아졌고 곧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Q 우문이지만, 수험공부에 있어서 자신만의 비책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그리고 수험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저만의 비책이란건 없는 것 같습니다. 꼭 몇가지를 꼽아야 한다면, 앞서 말했다시피 생활속에서 계속 생각하기와 출제자와 채점자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험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심(不動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자체가 힘들다기 보다는 공부하면서 드는 생각과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힘들게 만듭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마음이 조용해야 주위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인생의 설계에 있어서 멘토나 특히 공직생활을 하셨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서 롤모델로 삼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인가요?

A 부산에 계시는 형님 한분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역사속의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단순히 알고 예측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실천의 가치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공무원으로서의 포부는 어떠신지요.

A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먼저 들어가서 업무를 충실히 배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허리는 곧게하고 머리는 낮게하여 국민을 위한 가로등 같은 공직자로서 살고 싶습니다.

Q 올해도 행정고시 각 직렬별 수석합격자의 경우, 8개 직렬중 6개 직렬에서 여성이 수석을 차지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솔직히 말씀 드리면 무엇이 문제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석자들 중에 여성이 많다는 현상에 대한 생각을 물으시는 것이라면, 성별로 합격자를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Q 지금도 합격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전해주세요.

A 많은 분들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실 것입니다. 한번씩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휩쓸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맹자님 말씀처럼 하늘은 큰 일을 맡길 사람에게서는 배를 주리게 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줌으로써 강하게 단련시킨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묵묵히 한걸음 한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샌가 정상에 올라와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운의 꿈을 잃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Q 감사하고 싶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A 세상에 나게 해주신 부모님, 키워주신 할머니, 그리고 큰고모님을 비롯한 친척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을 주시고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경갑형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준 내 친구들과 늘벗 친구들, 수험생활중에 만난 형님 동생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보의 누나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Q 월간 고시계를 위해서 한 말씀해주세요.

A 수험기간 중 고시계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2차 시험 후에 나오는 기출문제의 모범답안과 교수님의 강평, 실제 출제위원의 채점평은 수험 전반의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험 직전까지 읽은 고급 자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월과 6월에 나오는 예상논점이나 최근 이슈에 대한 교수님의 논문은 학계의 관심사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월간 고시계가 되기를 바랍니다.